

Title: The Judges – Sermon 6: Sermon notes

Scripture: Judges 8:29-33

Date preached: April 24th 2022

Scripture: Judges 8:29-33

29 Then Jerubbaal the son of Joash went and dwelt in his own house. 30 Gideon had seventy sons who were his own offspring, for he had many wives. 31 And his concubine who was in Shechem also bore him a son, whose name he called Abimelech. 32 Now Gideon the son of Joash died at a good old age, and was buried in the tomb of Joash his father, in Ophrah of the Abiezrites.

33 So it was, as soon as Gideon was dead, that the children of Israel again played the harlot with the Baals, and made Baal-Berith their god. 34 Thus the children of Israel did not remember the LORD their God, who had delivered them from the hands of all their enemies on every side; 35 nor did they show kindness to the house of Jerubbaal (Gideon) in accordance with the good he had done for Israel.

29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30** 그에게는 아내가 많으므로 아들이 **70** 명이나 되었으며. **31** 또 세겜에도 첩이 있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다. **32**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자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33** 그러나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우상을 섬기고 바알 –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34** 그들은 사방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자기들을 구해 주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35** 또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가족을 후대하지도 않았다.

Review

Last time we began a two part examination of judge number 5; Gideon. He is also known as Jerubbaal. This was a name he earned after he had destroyed the altar to Baal. It means “let Baal plead or contend against him.” As I said previously he is considered to be the greatest judge and this is reflected in the coverage he receives. Of the 12 judges his story is the longest and most detailed. We looked in part one at three aspects of his life. His call to serve, his tearing down of his father's altar to Baal and his testing of God with the fleece. Let me briefly review some of the key things I said last time.

We first meet Gideon, the “hewer” or “hacker” threshing wheat in a winepress. The people of Israel had again fallen into the cycle of sin. They were guilty on this occasion of disobeying God. In order to bring them back to their senses, and into the right relationship with Him God had allowed the Midianites to oppress them. This semi nomadic desert people lived in what is today north west Saudi Arabia. Their form of oppression was interesting. Rather than trying to attack and conquer the land militarily they were content to continually raid Israel. Using their camels they would attack, steal the crops or livestock, destroy what remained and then leave. This had been going on for seven years when we first meet Gideon. The reason he was threshing wheat in the winepress was to hide what he was doing from the Midianites. It is whilst threshing that he is visited by the Lord Jesus. Jesus tells him that he is a mighty man of valour. This was news to Gideon who considered himself to be far from a mighty man. Jesus of course knew what Gideon would become.

His first mighty act was to take place close to home. His father along with the other residents of Ophrah had set up an altar and statue (pole) to Baal. Baal was the Canaanite god of fertility. Gideon

was ordered to tear down the altar and chop down the statue. Despite his fear at what the people would think Gideon went at night and destroyed the place of worship to this pagan idol. He then replaced this abomination with an altar to the one true God.

His next mighty act would be a military one. A large force of Midianites supported by the Amalekites had crossed the Jordan river and were camped in the valley of Jezreel. Gideon,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as told to summon and prepare the troops. Soon he is surrounded by 32,000 warriors ready for action. It is at this point that Gideon begins to doubt himself. He questions God as to whether he really is the right man to lead the people. In order to assure himself he devises the fleece test. If God agrees to the test conditions he will be sure that he is the right man. God consents to the test and Gideon now knows that He is God's choice, and that God is on his side. Today we will consider three events in the life of Gideon; the battle with the Midianites, Gideon's ephod and the death of Gideon. Before we look at these things let us pray.

지난번에 우리는 5 번 판사에 대한 2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드온. 여룹바알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얻은 이름입니다. 그것은 “바알이 그를 대적하거나 변론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그는 가장 위대한 판사로 간주되며 이것은 그가 받는 범위에 반영됩니다. 12 명의 심사위원 중 그의 이야기가 가장 길고 상세합니다. 우리는 1 부에서 그의 삶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섬기라는 부르심, 바알에게 바친 아버지의 제단을 헐고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파는 자” 또는 “해커”인 기드온을 처음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죄악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 경우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을 제정신으로 되돌리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을 압제하도록 허락 하셨습니다. 이 반 유목 사막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우디 아라비아 북서쪽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억압 방식은 흥미로웠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그 땅을 공격하고 정복하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만족했습니다. 낙타를 사용하여 공격하고 농작물이나 가축을 훔치고 남은 것을 파괴한 다음 떠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드온을 처음 만났을 때 7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용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기드온에게 이것은 희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드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첫 번째 강력한 행동은 집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브라의 다른 주민들과 함께 바알에게 제단과 신상(목상)을 세웠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제단을 헐고 그 신상을 베어버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면서도 기드온은 밤에 가서 이 이교 우상에게 바치는 예배당을 파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가증한 것을 유일하신 참 하느님께 바치는 제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다음 강력한 행동은 군사적 행동이 될 것입니다. 아말렉의 지원을 받은 미디안의 큰 군대가 요단 강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드온은 군대를 소집하여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곧 그는 행동할 준비가 된 32,000 명의 전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드온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 백성을 인도할 책임자인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양털 테스트를 고안합니다. 신이 시험 조건에 동의한다면 그는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라고 확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동의하셨고 기드온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그의 편이심을 압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생애에서 세 가지 사건을 고려할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기드온 에봇, 기드온의 죽음. 이것들을 보기 전

에 기도합시다.

The battle with the Midianites

Last time we concluded with Gideon testing God with the fleece. God consented to do as Gideon asked, and he was assured that he was the man to lead the army of Israel. The story of the battle is laid out for us in judges chapter 7. I won't have time to cover every detail of the story, so I encourage you to read it for yourself. Let me now give you the abridged version.

Gideon lead his force of 32,000 men to the well of Harod where they camp. This may seem like a large army, but we should bear in mind that the Midianite forces numbered around 132,000 men. It is whilst they are camped here that God speaks to Gideon. He tells him that he has too many men. God's concern is that when they are victorious they will ascribe it to their own strength and prowess. They will not see God's hand in it. Therefore a two stage sifting process was needed. For the first stage Gideon asked anyone who was fearful to leave. It was actually a Mosaic law (Deut 20:8) that the fearful should not be compelled to fight. Probably Gideon was shocked when 22,000 left and went home. God determined that this was still too many.

The second sifting involved asking the men to drink from the water. It is most common to kneel down to drink in this situation. This was what 7,700 men did. The less obvious way is to scoop up the water and drink it from cupped hands. This was what 300 of the men did. God selected the 300 cupped hand drinkers. What the significance of this way of drinking is not given us. Therefore any reasoning why God chose these men would just be speculation. Let us leave it by saying God knows best.

It was that same night that again Gideon seems to have doubts. From a human perspective we can understand this. Why had God dismissed most of the army? How could 300 men defeat 132,000 men? The Lord reassured Gideon by sending him down into the Midianite camp. Here he overhears two soldiers discussing a dream one of the men had. The dream is interpreted by them as meaning that the Midianite camp will fall to Gideon and his men. Gideon is reassured and returns to his camp.

It is now time for the attack to begin. Gideon divides his 300 men into three companies of 100. Each man is given a pitcher that contained a torch. He was to hold this in his left hand. In his right hand he held a trumpet. I made a point of saying what was in each man's hand to emphasise what was not in their hands. They carried no weapons. This would highlight that this was God's victory. The men surround the camp at midnight and on Gideon's signal blew the trumpets and smashed the pitchers. We can only imagine the shock and terror felt by the Midianites. One minute they were sleeping soundly and the next there comes this terrible noise. In their terror and confusion they end up fighting each other and fleeing into the night. God had done what He had promised and Gideon and his men were victorious.

Let us now move on to an incident towards the end of Gideon's life.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하였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할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룰 시간이 없으므로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약된 버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은 32,000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하롯 우물로 갔습니다. 이것은 큰 군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약 132,000 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이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에게 남자가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승리할 때 그것을 자신의 힘과 용감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2 단계의 선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기드온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떠나기를 요청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모세의 율법(신 20:8)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22,000 명이 떠나 집으로 갔을 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아직 너무 많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체질은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과 관련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술을 마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7,700 명의 남자들이 한 일입니다. 덜 분명한 방법은 물을 떠서 컵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300 명의 남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300 잔의 손으로 마시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음주 방법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말을 남기고 가자. 바로 그날 밤 기드온이 다시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군대의 대부분을 해산시키셨습니까? 어떻게 300 명이 132,000 명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으로 보내어 안심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두 군인이 한 남자가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 꿈은 미디안 진영이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에게 무너질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드온은 안심하고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공격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기드온은 300 명을 100 명씩 3 개 중대로 나눴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횃불이 든 물병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왼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트럼펫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사람의 손에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각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요점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강조할 것입니다. 자정에 진영을 둘러싸고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 나팔을 불고 투수를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미디안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폭 자고 있었고 다음에는 이 끔찍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그들은 결국 서로 싸우고 밤으로 도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고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은 승리했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삶이 끝날 무렵의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ideon's ephod

It took some time to fully drive out the Midianites. To do so Gideon had to call for help from some of the surrounding tribes. One of the tribes he neglected to call up to help was Ephraim. They were put out by this snub and Gideon had to diplomatically get them back onside.

He also had some issues with the men of Succoth and Peniel. They obviously doubted Gideon's ability to defeat the Midianites and refused him support and hospitality. Gideon remembered this and when the Midianites had been crushed he returned to hack down the men of Succoth and Peniel. We may today look on this act as being cruel and tyrannical. But we should remember that the men of Succoth and Peniel had wilfully rejected God's chosen leader. They were rebelling against God and in not supporting Gideon they were actually helping the enemy. As a judge it fell upon Gideon to act justly against them.

When Gideon returns home it is to a heroes welcome. The people come together and ask him to be their king and ruler. Gideon answer them wisely by reminding them that God is their king and ruler. What happens next is rather puzzling. Despite rejecting their offer to be king Gideon lives and acts like a king. He appears to live a life of luxury and has many wives. He even names one of his son's Abimelech which means "my father is a king." Sadly he also leads the people into idolatry.

The Midianites wore gold crescents either in their nose or ear. These would be taken as the spoils of war and the people of Israel had collected a large quantity. Gideon requests the people give him their gold and collects approximately 22 kg of gold. With this gold he makes an ephod. We are not told why he decided to do this. Perhaps he intended it to be something for him alone to enjoy.

Maybe it was intended as a memorial to a great victory.

There is also some debate regarding exactly what this ephod was. It may have been fashioned after the vest like garment worn by the high priest. It might have been a replica of the priestly ephod made completely out of gold. Or it may have been a statue or free standing image. Whatever the case it became a snare to Gideon and the people. They **played the harlot with it**. This means they worshipped it as an idol, or used it in the worship of another pagan god.

Although Gideon had not intended the ephod to be used in this way its existence led the people to fall away from God.

Let us conclude our study of Gideon by looking at the end of his life.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드온은 주변 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기를 소홀히 한 지파 중 하나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속임수에 의해 진압되었고 Gideon은 외교적으로 그들을 되돌려 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지 의심했고 그의 지원과 환대를 거부했습니다. 기드온은 이것을 기억하고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수고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행위를 잔인하고 압제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고의적으로 거절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었고 기드온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원수를 도운 것이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정당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기드온이 집으로 돌아오면 영웅들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그들의 왕과 통치자를 청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상기시켜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오히려 당혹스럽습니다. 기드온은 왕의 제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살며 행동합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며 많은 아내가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는 또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코나 귀에 금 초승달을 달았습니다. 이것들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취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양을 모았습니다. 기드온은 사람들에게 금을 주도록 요청하고 약 22kg의 금을 수집합니다. 그는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가 왜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것을 혼자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의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에봇이 정확히 무엇이었는데가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사장이 입는 의복처럼 조끼를 따라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금으로 만든 제사장 에봇의 모형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동상이나 독립된 이미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것은 기드온과 백성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창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했거나 다른 이교 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은 에봇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도록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로 인해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기드온의 말년을 살펴봄으로써 기드온에 대한 연구를 마치도록 합시다.

32 Now Gideon the son of Joash died at a good old age, and was buried in the tomb of Joash his father, in Ophrah of the Abiezrites.

Gideon and the people of Israel would enjoy 40 years of peace or rest. Gideon lived a good life until old age. He accumulated many wives and had 70 sons! This of course was not God's will and was in fact the way that pagan kings lived. He also kept a concubine in Shechem who bore him his son Abimelech. Later this son will go on to be the cause of great trouble and strife. When Gideon died

he was buried in his fathers tomb. Following this the people lived in willing joyful obedience to God. Sadly that was not what happened.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40 년 동안 평안하거나 안식했습니다. 기드온은 노년까지 잘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아내를 얻었고 70 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교도 왕들이 살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세겜에 첩을 두었고 그에게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이 아들은 큰 문제와 다툼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죽었을 때 그의 아버지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은 기꺼이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슬프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3 So it was, as soon as Gideon was dead, that the children of Israel again played the harlot with the Baals, and made Baal-Berith their god.

No sooner had Gideon died than the people again fell into idolatry. They once again sought to replace the one true God with a pagan substitute. I suppose we might ask why it was that Israel repeatedly fell into this pattern. Why not just resist these urges and focus on God. The answer is that worshipping pagan gods was what everyone else was doing. It was normal in the ancient world. When other people were following these simple, convenient and logical methods of worship and having success why not copy them. In this case they elected to worship Baal-Berith which means “Baal (lord) of the covenant.”

기드온이 죽자마자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참하느님을 이교도의 대체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이러한 패턴에 빠졌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충동에 저항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그 대답은 이교도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간단하고 편리하며 논리적인 예배 방법을 따르고 성공할 때 그것을 모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그들은 “계약의 바알(주)”을 의미하는 바알-브릿을 숭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34 Thus the children of Israel did not remember the LORD their God, who had delivered them from the hands of all their enemies on every side; 35 nor did they show kindness to the house of Jerubbaal (Gideon) in accordance with the good he had done for Israel.

Most of us enjoy a story with a happy ending. Sadly however the story of Gideon ends in great sadness. Again we see the people forgetting all that God had done for them. How quickly they forgot about how He gave them a famous victory over their enemies. Not only did they forget God, but they also forgot Gideon and his family. His family went from being respected and honoured to being forgotten and ignored. It is important that we recognise and remember the service people have done. This is why we have memorial days and statues that commemorate people's achievements.

우리 대부분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를 즐깁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기드온의 이야기는 큰 슬픔으로 끝납니다. 다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분이 어떻게 적들에 대한 유명한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는가를 얼마나 빨리 잊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그의 가족도 잊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존경과 명예에서 잊혀지고 무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봉사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일과 동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An assessment of Gideon

As we stand back and look at Gideon what are we to make of him? I think we would have to conclude that he was far from being the perfect hero. He showed timidity and fear and his faith was lacking on a number of occasions. In his latter years he gave in to lust and sought to live the life of a king. His bad decisions in making a golden ephod and in having a concubine led to serious trouble. It is these weaknesses of character that make Gideon so relatable. He is a common everyday kind of hero. In him we see elements of ourselves. We too lack faith, we too are at times unable to relate properly to God. We too are often led by our greed and selfish desires.

However we should also note that his failings as a man meant that what God accomplished through him is even more remarkable. God used this flawed man to bring an end to Baal worship for a time. God also empowered him to lead the people to a mighty victory. Both of these acts took courage and a dependence upon God. So Gideon was flawed, but a hero nevertheless. Let me end with how He is remembered in scripture.

This is from the hall of faith that we find in Hebrews chapter 11.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기드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벽한 영웅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다. 소심함과 두려움이 많았고 믿음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년에 그는 정욕에 굴복하고 왕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 에봇을 만들고 첩을 두는 일에 있어서 그의 잘못된 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기드온을 그토록 친근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성격의 약점입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의 영웅입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요소를 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 하나님과 합당하게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가 인간으로서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성취하신 것이 훨씬 더 놀랍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흠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여 한동안 바알 숭배를 중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백성을 큰 승리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 모두 용기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결점이 있었지만 영웅이었습니다. 그분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억되는지로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 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입니다.

32 And what more shall I say? For the time would fail me to tell of Gideon and Barak and Samson and Jephthah, also of David and Samuel and the prophets: 33 who through faith subdued kingdoms, worked righteousness, obtained promises, stopped the mouths of lions, 34 quenched the violence of fire, escaped the edge of the sword, out of weakness were made strong, became valiant in battle, turned to flight the armies of the aliens. 35 Women received their dead raised to life again. (Hebrews 11:32-35)

32 그 밖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33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옳은 일을 하였으며 약속된 것을 받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34 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칼날도 피했으며 약한 사람이 강해지고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외국 군대를 무찌르기도 하였습니다. 35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Hebrews 11:32-35)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1 Playing the harlot

The people of Israel repeatedly throughout the book of judges fell into idolatry. The bible on a number of occasions refers to this as *playing the harlot*. Simply put this term refers to spiritual prostitution. It describes a situation in which a person has divided his devotion among many objects of worship. In Israel's case they didn't want to only rely on God they thought it wise or prudent to also worship other pagan gods. The reason God hates this practice is because the adoration and worship that should be His alone is shared. It also shows Him that His people are not reliant upon Him alone. They demonstrate their doubt in His ability to do things.

And I would argue that the same thing goes on today amongst people professing to be Christians. We might not be worshipping other gods, but we are relying on things other than God. We may be relying on our wealth, our education or our material goods. So let us look carefully at our lives and seek out areas of idolatry. Let us not condemn the people of Israel when idolatry exists in our own lives.

사사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이것을 창녀로 묘사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용어는 영적 매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숭배의 많은 대상에 자신의 헌신을 나누어 놓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그들은 다른 이교도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있어야 할 예배와 예배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의 백성이 그분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 교육 또는 물질적 재화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고 우상 숭배의 영역을 찾아봅시다. 우리 삶에 우상숭배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지 맙시다.

2 Short memories

Gideon's story does not have a happy ending. He led the people into 40 years of peace but when he died he left no lasting legacy. The people soon reverted to their evil ways and forgot all that God had done. In so many ways we are exactly the same. How quickly do we forget that God answered our prayers. How soon does it slip from our mind about how blessed we are. No sooner does something bad or negative happen, and we revert to thinking God has forgotten, or is ignoring us. I think there is great value in keeping a record of God's answered prayers. You could keep a journal or these days make a record on your smart phone. Then whenever you fall away from God or experience a moment of doubt you can look at this record. You can see all the times God loved you and answered your prayers. God truly loves and cares for His precious children. Let us never forget this truth.

기드온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을 40 년의 평화로 이끌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곧 그들의 악한 길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빨리 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빨리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까?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거나 무시하신다는 생각으로 되돌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된 기도를 기록하는 데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잠시 의심이 들 때마다 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

고 기도예 응답하신 모든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십니다. 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맙시다.